

‘돈 되는 오리’

HPAI로 인해 오리 산업에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PAI 발생농장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더욱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재 입식의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오리농가에서 농장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리 사양관리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리사의 종류와 오리사 건축 요령

오리사는 오리의 생산능력을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한 장소 또는 수단이다. 오리는 외부의 자연환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적응능력이 있지만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연환경으로부터 오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면적에 몇 수 이상의 오리를 수용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의 충족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경제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오리사에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은 자연, 사회, 경제적 여건을 포함한 각각의 경영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오리사 건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오리사 설계 시 시설규모를 정확히 설정하여 공간의 이용성을 극대화하고, 자연환경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료의 운송 거리를 최소화하며, 배설물의 취급체계를 단순화시키고 누출을 방지하도록 하며, 물자의 취급 동선이 서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저란 실(알 보관실)과 오리의 출하 적재시설은 도로와 직결시키고, 손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시설부지의 여유를 확보하며, 가급적 간결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건축

열은 전도현상에 의해 벽과 천정을 통해서 이동한다. 열의 이동은 지붕이나 벽에 의해 이루어지며 천장으로 45~50%(여름철 70%)가 방열되고 창문으로 13~20%, 환기로 15~35%, 바닥으로 7% 정도가 방열된다. 오리의 경제적인 적온 21℃를 중심으로 하여 10℃ 이상 온도가 변하면 생산성이 낮아진다. 오리사의 보온과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단열시설을 적절히 해야 한다.



환기가 잘 되도록 건축

오리는 다른 가축에 비하여 체온이 높고 대사 작용이 왕성하여 단위체중 당산소의 소요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체내 수분의 배설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로 오리사 내의 과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햇빛이 잘 들도록 건축

오리의 경우 햇빛은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산란율을 높이는 동시에 비타민D의 합성에 관여한다. 햇빛은 오리사 내 보온과 건조 및 살균 소독작용을 하며, 오리사 내의 채광량은 오리사의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오리사의 방향은 동향, 동남향, 남향이 좋다.



관리 용이하고, 단위 면적당 사육 마릿수 많도록 건축

오리고기와 오리알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료비 다음으로 높다. 사양 관리가 편리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서 단위면적당 사육 마릿수가 많은 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깨끗한 물 확보가 용이하도록 건축

오리는 매일 200~600ml의 물을 마시기 때문에 먹는 물에 유해물질이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더라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각 나라는 먹는 물 중에 오염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일생동안 섭취하여도 유해하지 않는 농도인 최대허용량을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정하고, 먹는 물이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 처리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축산분야의 인증을 위한 음용수 수질기준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은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도로 및 전기 시설을 확보 후 건축

오리를 사육하는 동안 사료차, 생산물 출하차량 등 많은 대형차량이 통행하므로 차량이 농장을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여건이 좋아야 한다. 또한, 차량과 지게차 등이 운행하는 데에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농장 내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자동화 시설설비 시 전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동화의 정도, 종류에 따라 전기의 사용량이나 전압도 달라진다.

오리사 종류 및 형태

우리나라 오리사는 크게 비닐하우스 오리사, 보온덮개 간이 오리사와 완전 오리사로 나누어지며 시설수준이 낮은 간이 오리사가 월등히 많다. 비닐하우스나 보온덮개를 이용하는 간이 오리사는 시설비가 적게 들기는 하나 오리사 내 유해가스가 많으며 대체적으로 환기와 단열이 불량하여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이 곤란하여 생산성도 떨어지게 된다. 이에 비해 완전 오리사는 간이 오리사보다 건축비는 많이 소요되나 환기가 용이하고 이에 따라 사육 성적도 좋다.

1 개방 오리사

양쪽 벽에 윈치 커튼을 설치하여 겨울철에는 윈치 커튼을 움직여 밀폐시키고 그 외 계절에는 외부온도에 따라 윈치 커튼을 개폐하여 자연환기에 의해 환기시키는 오리사로서 유창 오리사라고도 한다. 벽면이 단열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오리사 내부의 온도가 낮아 사료 효율이 떨어지고 여름철에도 광선과 복사열이 오리사 안으로 침입하여 오리들이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2 무창 오리사

무창 오리사는 외부로부터 공기나 열이 오리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정이나 벽을 단열재로 완전히 밀폐시킨 오리사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소음공해, 공기 오염, 지가의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양계농가를 시작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오리 농가에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이 확대되면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간이 오리사

우리나라 오리 사육 농가 중 많은 농가들이 간이 오리사를 이용하여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기존의 원예 온실을 개조하여 이용하거나 반원형의 철재 파이프 위에 비닐과 보온덮개를 덮고 측면에 1m 내외의 윈치 커튼을 설치한 형태로서 초기 시설투자비가 적지만 환경관리가 어렵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